

□ 시리즈-인문학의 부활을 꿈꾸며

위기의 인문학, 무너지는 인간

생명력 내포한 휴머니티 복원돼야

안 영 수

(문리대 영문학과 교수)

학부제의 열풍은 고향골에도 예외없이 몰아쳐서 필자가 몸담고 있는 영어영문학과와 영어교육과가 영어학부로 개편되어 여름내 몇몇 교수들이 통합교과과정을 만드느라고 수고를 하였다. 그런데 영어 영문학 전공자 응용영어 전공자의 1,2학년의 코어 커리큘럼(core curriculu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읽기의 내용물이 문학성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들이 있었다. 응용영어 전공학생들에게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을 읽힐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나는 그들이 학생의 취적 거정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임을 알고 비애를 느꼈다. 앞으로는 적정수준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디와 같은 사실은 작금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인문학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옛것에 '회복의 이해와 감상'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서양문화에서는 가장 고전적인 작품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죄인 근친상간과 부친살해의 비밀을 혼자만 알고 앞으로 잘 하면 되지 그토록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야하는냐고 의아해 했다고 한다. 그들은 이 작품에 내재한 인간의 운명과 자유의지, 신의 길과 인간의 오만

등의 심오한 갈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진실에는 멀어져도 편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학 입학할 때까지도 그들은 객관식 선다형과 단답에만 길들여져 인간의 총체적인 삶과 연관시킨 인문학적 독서나 사색은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가치는 무엇인가? 과거 서양의 지성사를 돌이켜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의 미소'를 그린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코페르니쿠스보다 앞서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쓴 500 페이지의 수기와 스케치를 남긴 과학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의 다면적인 개성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의 전형이었다고 하겠다. 당시 영국의 이상적인 신사 개념은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 전쟁이나 정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음악 등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 이 점은 당시의 수필가, 정치가,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 발전소상에 있었던 과학을 고취한 유명한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즉 르네상스시대의 이상적인 인간은 한 분야에만 치우친 전문가가 아니라 인격에 바탕을 둔 전인이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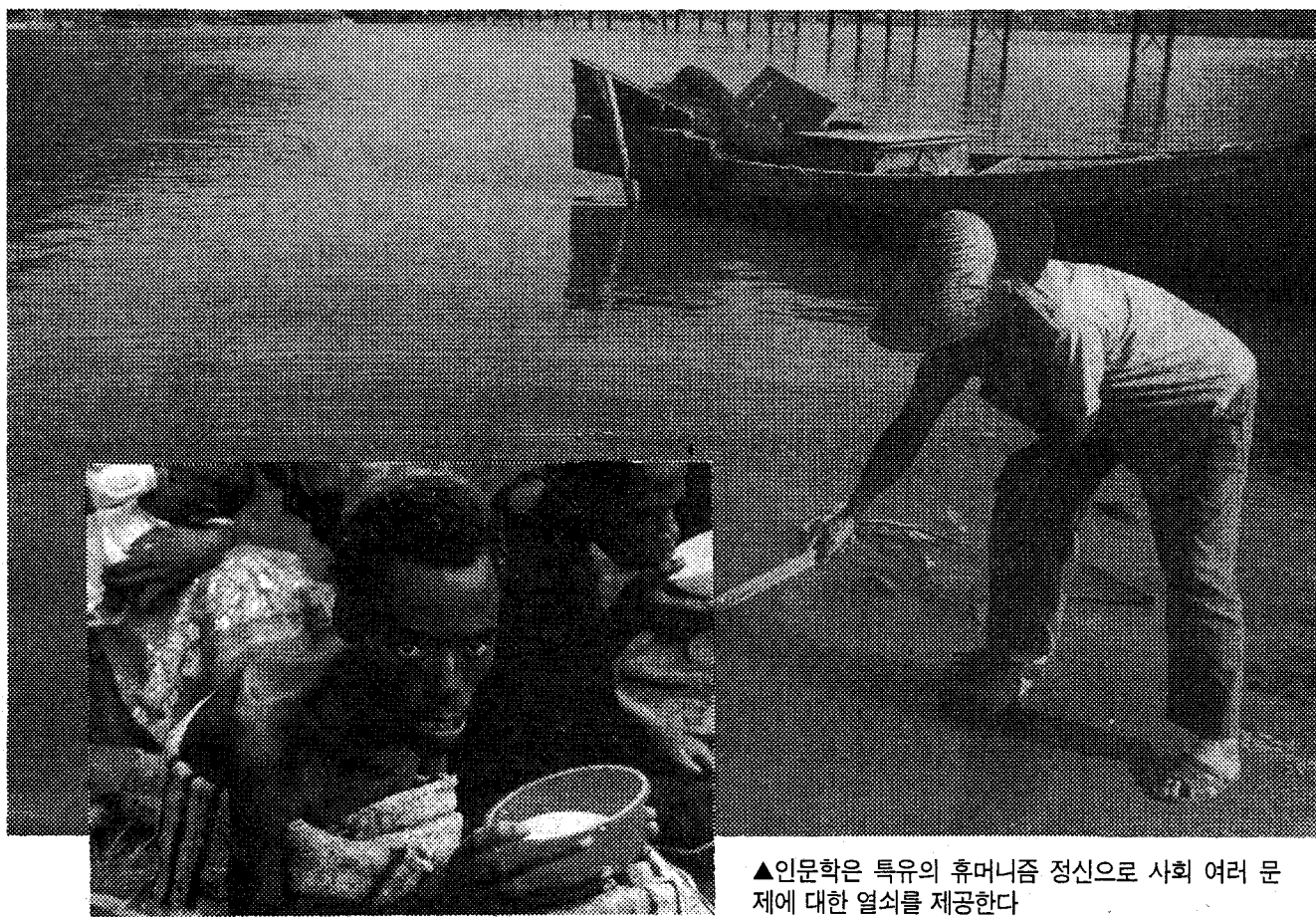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과학과 산업의 발달은 총체적 인간보다는 좀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람을 선호하게 되었고 따라서 학문도 총체성보다 전문성, 지엽성을 띠게 되었으며 이제는 학문간, 학제간의 인접성까지 소멸되고 말았다. 미국의 지명난 소설가이며 시인인 윌렐 벨리는 '대학의 실종'이라는 글에서 현대 대

궁심는 순서

1. 인문학 위기의 주원인
 2. 인문학의 가치
 3. 외국의 인문학 위기
- 극복 사례
4. 인문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학교육은 인간의 보편적인 이상과 사회봉사를 외면하고 현학적, 직업적인 전문화로 치닫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는 왜곡된 대학교육의 비유로써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공산품과 그것을 구성하는 수많은 부품과의 관계를 예로 들었다. 사람들이 공산품보다는 자기가 만드는 부품에만 매달릴 때 그는 공산품의 품질과 성능에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문학비평가 사무엘 존슨은 학문은 인생과의 전반적인 접촉이라 하면서 학문의 기둥을 잡아야지 잔가지들을 잡으면 추락한다고 경고하였다. 나무의 잔가지들은 전문분야에 비유되고 기둥은 인문학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가르치는 인문학은 유기적, 통합적,



▲인문학은 특유의 휴머니즘 정신으로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한 열의를 제공한다

포괄적 학문이며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학문이다. 폴 틸리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문학은 '깊이있는 사고'를 하는 학문이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출생과 죽음 사이의 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에 따르면 깊이있는 차원의 사고를 상실하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깊이있는 사고는 환경오염, 인간소외, 인권 문제, 개인 및 단체들 사이의 갈등과 같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깊이 차원의 사실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시적인 것대로 삶을 재는 가치관 때문에 가시화되고 있다.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높게'라는 슬로건 아래 물질주의에 굴복하여 끝간 데 없이 돌진해나가는 인간의 욕망에 맞서

인문학은 필연적으로 상업주의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성경에 있듯이 생명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는 두 개이며 동시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인생을 안다는 것은 곧 선악을 이해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학문이 도덕성을 가르치는가?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외무고시를 합격하면 그의 도덕성도 담보할 수 있는가? 인간의 갈등, 고통, 죽음에 대해 밤새워 고뇌하지 않고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무에서 기둥을 인문학이라든가 가치들은 전문분야라고 가정할 수 있다. 세분화를 강조한 나머지 학문의 인접성을 거부하여 인문학에서 잘라내면 그 분야는 죽고 말 것

이다. 그것이 건강하게 또 가치를 치러면 반드시 인문학에 그 토대를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의 위기는 곧 인간의 파편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정체성마저 상실케 할 것이다. 만약 인문학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과학적 발명의지에 불타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에 의해 파멸하게 되는 프랑켄슈타인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인문학의 복원은 인정, 포용력, 사랑이라는 인간 생존에 절대적인 생명력을 내포한 휴머니티의 복원이다. 21세기의 문화인이 과연 어떤 이미지로 그려져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통찰력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참으로 우리는 프랑켄슈타인, 인의 재탄생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 최근의 인문학 계간지들

또 다시 찾아오는 계간지의 봄

70, 80년대의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 땅의 지식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줬던 것이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 등의 잡지였다고 한다. 그만큼 이들 잡지는 단순히 한 개의 잡지가 지니는 의미를 넘어 이론과 실천의 토대를 마련해 준 그나마 유일한 매체였던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로 과학기술과 외국어 등 실용적인 학문이 대세를 얻음으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지니던 인문학이 지위가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세계 여러나라가 너나없이 인문학의 위기를 얘기할 때도 인문학 관련 서적들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프랑스도 지난해부터 인문학 도서의 판매율이 예년에 비해 20%이상 감소했다는 소식은 인문학의 전반적인 퇴조현상을 상징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97년은 이러한 위축을 떨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문위의 학문, 즉 메타학문적인 인문학의 재정립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한해로 기록될 만하다. 현대사상, 세계사상, 전통과 현대, 열린지성, 신인론, 당대비평 등 이른바 인문학 전문 학술잡지의 창간러시는 뉴미디어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우선 정책이 우리사회의 담론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볼 때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례로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기술적 효율성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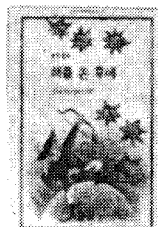
점에서 인간위주의 사회적 영향과 문화적 파급효과 등으로 점차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면 당연한 흐름이기도 하다. 각각의 잡지들이 창간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회조직이 점차 고도로 발전하고 인간에 대한 구속이 점차 심해질수록 사회의 구성원, 즉 인간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사회변동과 함께 인간의 주체성과 문화양식,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인식은 오히려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다.

모처럼 맞이한 인문학 서적과 잡지의 전성기가 일회적인 '봄'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참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문학적인 인식그리기의 핵심이라 할 대학의 심각한 자기모색이 급선무다. 오히려 사회의 인문학 부흥노력에 비해 인문학 전공자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더욱더 피부에 와 닿는다.

뉴미디어가 푸코와 보드리야르를 만나고, pc통신에서 하버마스를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지적인 분위기가 편식을 지양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문학은 흔히 얘기하는 21세기 정보화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현 편집간사)

신간안내



해를 쓴 후에

이 책은 수천년을 이어온 중국민화를 작가 이기형이 이야기 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번역가인 작가는 중국민화를 통해 중국민중의 지혜를 엿보길 권한다. 이기형 지음, 도서출판 산하 펴냄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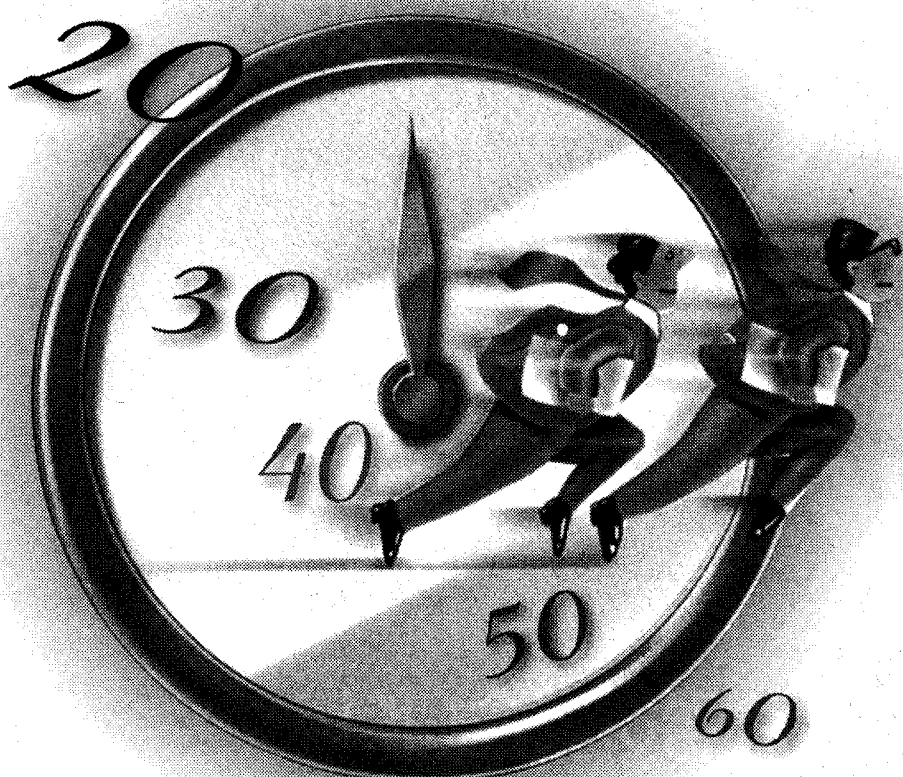
20년전 책을 복간했다. 매스커뮤니케이션학의 교과서로도 불린다. 전자시대의 문명비평가 마셜맥루한의 책. 매스미디어에 관해 입문부터 전문적 시각까지를 맥루한 특유의 분석력으로 풀어내고 있다. 박정규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권영길과의 대화

유일한 진보진영의 대선후보,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의 지금까지 삶을 풀어 썼다. 파리 특파원 출신의 유능한 기자 생활과 엘리트적 계층 생활, 한 두번 노조 사무실을 찾다가 입문한 노동운동, 그리고 올해 대선 후보로 출마한 동기까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권영길의 소개된다. 김정환 지음, 월간 말 펴냄

대학별곡 제 2계명



포항제철은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라이프 스케줄'입니다. 채워주십시오

20대에 준비해야할 덕목들.

30대를 기꺼이 던져보고 싶은 일들.

40대의 열정을 빛나게 해줄 일들.

50대에 거두게 될 풍성한 수확에 대하여.

60대 이후의 여유를 가지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20대에 세운 라이프스케줄은 인생의 방향타가 됩니다. 되도록 거창하고 치밀하게 세워 주십시오. 얻는 것은 크되 잃는 것은 없을 테니까요!

세계제철의 철강기업

포 항 제 철